

의료인력 질적수준 향상



김건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1. 들어가는 말

의사의 질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졸업전 교육, 졸업후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등 의학교육의 각 단계에서 그동안 의학계의 노력으로 꾸준한 발전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고 타 분야에 비하여 월등한 교육을 제공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목표 역시 늘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의학 교육 개선, 즉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심층적으로 의사의 질 문제를 분석하여 보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하였을 때 조만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

으면 안 될 상황을 현실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출범되는 정부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의학 교육에 대하여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의사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가. 의과대학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신설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신설은 의사인력의 과잉

배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부담하게 되는 교육투자를 낭비하고 있고 또 소규모 의과대학은 구조적으로 의사양성에서의 교육비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일부 의과대학교육의 교육 충실도의 저하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

모든 의과대학이 나름대로 임상실기를 익히기 위한 임상실습과정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주로 참관교육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부재한 형편이므로 의과대학 졸업생의 임상수행능력이 크게 모자라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의대졸업생이 인턴과정을 통하여 부족한 임상수행능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과대학 교육의 불충분한 검증기전

일부 의과대학의 교육충실도가 우려할 수준에 있어 의학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의과대학 인정평가사업을 수행하여오고 있다.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은 비단 여건이 나쁜 의과대학을 가려내는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평가를 의과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고 또 평가자 쪽에서도 의과대학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적평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구조적 혹은 양적평가에 치중하고 있어 원래의 의도만큼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의사면허시험

지금의 의사면허시험은 의사국가시험원의 설립과 함께 내용면에서 대단한 발전이 있었지만 법에 의하여 지식테스트만의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되어있어 면허를 받게 되는 의사의 임상수행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더구나 의사국가시험원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의사국가시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 발전의 속도를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다. 전공의 과정

현재 전공의 과정은 의사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졸업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의과대학 교육만으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더구나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이 어렵도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과정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온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졸업후 교육이 단과전문의의 양성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확실히 법에 묶여 있어 단과전문의가 아닌 일차진료의의 양성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과전문의의 양성에서도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의학을 수용하거나 전문의로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여야할 역할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어렵게하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라. 평생교육

의학만큼 신지식이나 신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적용되는 분야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의사면허 혹은 전문의 자격 취득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현재 법적인

로 평생교육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서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계발을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마. 의학교육정책 수립

의사의 질적 수준이 교육을 통하여 유지 향상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의학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가 각각의 입장과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별, 단체별 활동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 경주하는 노력이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최종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연계성과 포괄성을 갖는 정책수립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각 단계에서 분절화 되거나 중복되거나 때로는 그 어느 쪽에도 포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낭비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파생되는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과대학의 수 및 졸업생의 과잉
 - 사회 간접자본의 낭비
- 교육여건감시기능의 결여 -부실한 여건속의 의사 배출
- 임상수행능력 및 태도교육의 미흡
 - 의사 수행능력 부족
- 개업인가제도의 부적절
 - 수행능력부족 의사에게 진료 허용
- 부적절한 졸업후 교육
 - 전문의사의 과잉 배출과 일차진료의사의 부족

- 의학교육의 포괄적 정책부재
 - 의사에 대한 부신과 의학교육발전의 저해

3. 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가. 의과대학인정평가 사업의 제도화 및 의과대학의 통합함

의학계 스스로가 추진하여온 의과대학인정평가 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든 의과대학이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실질적으로 의과대학에 영향을 주어 개선이 실현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평가항목을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과정이나 결과의 평가 위주로 질적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40명 정원의 의과대학은 교육투자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의사인력의 양성비용의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인정평가사업의 결과를 기초로 부실한 의과대학의 정리와 충실한 의과대학의 지원을 강화하여 통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인력의 과잉배출은 교육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므로 의사인력의 적정한 감축이 필요하며 의사인력의 수요가 변할 때는 의과대학의 증설이 아닌 입학정원의 조절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 학생인턴의 도입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참관위주의 피상적

교육과정에서 참여위주의 적극적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의과대학졸업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인턴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수기와 태도의 영역을 학생과정으로 이입하여 인턴과정을 줄여 의사의 교육기간을 줄이고 보다 능력 있는 의사를 배출하기위해 현재 선진 외국이나 국내 일부대학에서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및 의사국가시험원의 독립

필기시험만으로 시행되는 의사면허시험을 다단계화 하여 실기시험을 도입하여 의사면허취득자의 임상수행능력을 적절히 검증하고 의과대학에서의 학생인턴제도 도입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의사국가시험원을 독립하도록하여 발전에 가속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수임태세를 갖추고 독자 수행 능력을 보유하면 분리 독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전문의제도 운영의 민영화 및 일차진료의 양성제도 활성화

전문의제도는 1952년 도입후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도이지만, 일차진료의사의 양성과정 없이 전문의만을 양성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일차진료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과전문의가 일선에서 모든 의료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교육의 낭비와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하였

다. 또한 전문의 제도의 모든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나 의학 적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선진외국에서처럼 전문의 제도 운영을 민영화하여 민간 기구로 하여금 제도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진료의사의 양성을 위해 가정의학전문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차진료의사의 충분한 양성은 요원하다. 의사면허취득후 일정 기간의 수련 과정을 두어 일차진료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차진료양성과정의 의과대학 졸업생의 선호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평생교육의 강화

평생교육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형식적이고 방만하다. 전문의자격과 단독진료허가의 연장을 평생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평생교육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요할 것이고 선진외국에서처럼 자격 연장의 결정을 공익성있는 민간기구에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바. 통합의학교육 정책기구의 활성화

의학 교육은 의과대학교육으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정책수립을 할 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과대학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의과대학학장협의회, 의사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졸업후 교육은 보건복지부, 각 전문과목학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위원회가, 전문의 자격시험과 의사의 평생교육은 주로 담당하여 왔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

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정책의 분절화가 초래되기도 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학생인턴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 필연적으로 졸업후 인턴과정에 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의학계안에 있는 공신력있는 교육관련 전문단체와 의사양성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의료이용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행력있는 정책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새정부에게 바라는 정책방향

가. 학생인턴제도 도입의 지원

학생인턴제도의 도입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개정 같은 절차는 필요없다. 또 이 문제는 대학의 교과과정의 개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방침을 시달할 성격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학생인턴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이 투자하여야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 전담교수인력의 확보는 물론 인턴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실습장의 확보나 기숙사의 건립 등 단기간에 대학에는 단기간에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하는 일이다. 학생인턴제도의 도입은 배출되는 의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크게 배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과대학인정평가의 제도화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은 현재 의학계 스스로 시작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사업이 갖는 한계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공인된 제도로서 법적인 뒷받침과 함께 강제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과 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하여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이 제도화되고 이 평가를 통하여 의과대학의 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의사의 질향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약한 대학을 선별하여 통폐합을 하거나 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우수대학에 대하여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및 전문화

의사면허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전신인 의사국가시험원이 보건원고시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사국가의 업무를 수행하여 짧은 기간동안 의사국가시험의 질이 향상된 점을 평가하여 그동안 보건원고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모두 관장하는 기구로 탄생한 것이고 출범당시에 각 분야의 국가고시업무가 독자적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한 단체부터 분야별로 독립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노력으로 몇 개의 분야는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의사, 간호사등의 분야는 독자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서로 특성이 다른 분야가 한꺼번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하는 발

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역량을 갖춘 분야부터 따로 독립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국가시험은 출제기준 제정, 의사의 직무분석 연구, 지방분산 실시, 문항수의 증가, 과목의 축소조정, 문제해결형 문항의 중점 개발, 자료제시형 문항의 활용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고 다른 보건의료분야시험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필기시험만으로는 임상수행능력과 태도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실기시험의 도입이 절실하고 선진외국처럼 필기시험후 학생 인턴과정을 통하여 임상실기를 익힌 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다단계화를 빨리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의사면허와 단독진료허가의 분리

학생인턴제도의 도입과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로 의과대학 졸업생의 질이 향상이 되겠지만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졸업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전공의제도가 유일한 졸업후교육인 현재의 상황에서 의과대학졸업생에게 졸업후교육에서 선택의 길을 열어 줄 것이며 현재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전문의와 일차진료의 불균형의 해소와 단과전문의가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교육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만 의사면허와는 달리 단독진료허가는 민간기구에 의하여 심사되고 발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단독진료허가를 포함하는 의학교육 관련단체를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사의 평생교육을 단독진료허가의 연장과 연계하여 제도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 일차진료에 대한 유인정책 수립과 추진

대학 졸업생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음은 비단 의료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일차진료가 진로 선택에서 매력이 있는 분야로 선호도가 높아지도록 일차진료 우대의 유인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바. 전문의제도 운영의 민영화

전문의제도가 세부적 사항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따른 경직성으로 인하여 의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전문의제도가 법으로 전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50여년동안 제도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온 의료계가 충분히 독자수행능력이 있는 만큼 전문인력수급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정부가 주도하되 수련연한, 교과과정이나 자격인증 등의 모든 사항을 민간으로 위임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민간으로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사. 실행력있는 의학교육정책기구의 활성화


의학교육을 의과대학생선발정책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안목과 시각을 가진 의학교육정책기구를 활성화하여 교육에 관한 일관성있는 정책수립과 이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기구를 법인화하고 이 기구내에는 의학교육관계자 뿐 만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언론계, 교육계, 의료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의료발전의 핵심인력인 의사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의료의 공공성과 복지국가에서의 의료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의료의 중심이 되는 의사인력을 양과 질에 있어서 적정성을 추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육에서 임상실기교육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실기시험으로 검증하고 졸업후의학교육을 개선하고 의사의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일이 당장 시행되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하여 의학계와 의료계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나 현 제도상 민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또 민간에 위임 또는 이양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 시행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3